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8. 31.(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	강병수	☎ 760-7901
		업무담당자	김유근	☎ 760-7921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브로콜리 정식시기별 병해 · 상품성 비교 실증 추진

- 9월 상·중순, 10월 상순 정식...검은무늬병 발병주율·상품수량 등 조사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(소장 강병수)는 서부지역 주요 월동채소인 브로콜리의 안정 생산을 위해 정식시기별 병해 발생과 상품성을 비교하는 실증 전시포를 운영한다.
- 서부지역(한림읍, 한경면, 대정읍, 안덕면)의 브로콜리 재배면적은 2025년 드론 면적조사 결과 741.2ha로 도 전체 1,009.4ha의 73.4%를 차지한다.
- 고산지역 기상자료 분석 결과, 최근 5년(2021~2025년) 9월 상·중순 평균기온은 평년(1991~2020년)보다 각각 1.8℃, 2.9℃ 높았으며 강수량도 각각 64.3mm, 49.1mm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이처럼 브로콜리 정식기 전후 고온다습한 환경은 초기 활착과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변화하는 기상 여건을 고려한 재배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.
- 이에 따라 서부농업기술센터는 동일 품종의 브로콜리를 9월 상순, 9월 중순, 10월 상순에 각각 정식하고 동일한 재배조건에서 검은무늬병 발생과 수확기 상품성을 비교하는 실증을 추진한다.
- 병해조사는 정식 후부터 수확 전까지 월 2회 정기적으로 실

시하며, 정식시기별 검은무늬병 발병주율*을 조사한다. 수확기에는 꽃봉오리 무게, 상품률, 상품수량 등을 조사해 정식시기에 따른 상품성 차이를 비교할 계획이다.

* 발병주율: 조사한 전체 식물체 가운데 병이 발생한 식물체의 비율

- 실증 결과는 노지 브로콜리의 적정 정식시기와 병해 경감 재배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.
- 강병수 서부농업기술센터 소장은 “최근 정식기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으로 브로콜리 초기 생육과 병해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” 며 “이번 실증을 통해 검은무늬병 발생을 줄이면서 상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정식시기를 제시해 농가의 안정 생산을 지원하겠다” 고 말했다.